특별학기로 학생 · 교수 '열정 방학'

전북대, 전국 유일 4학기제 시행

전북대학교가 여름 특별학기를 통해 학생과 교수가 방학 중에도 가르침과 배움에 열정을 쏟고 있다.

전북대학교의 여름방학은 학기 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름 특별학기를 통해 학생과 교수가 방학 중에도 가르침과 배움에 열정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대가 학생들의 탄탄한 기초학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4학기 제도' 때문이다.

전북대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생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1, 2학기에 여름 및 겨울 특별학기를 개설했다. 국립대 가운데 처음이다. 방학 중 특별학기를 통해 수준별 분반수업을 운영, 학생들에게 탄탄한 기초학력을 갖게 하고, 이를 전공교육의 수월성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여름방학 역시 지난 7월11일부터 8월12일까지 1,996명의 학생이 54분반으로 나눠 매일같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학생들은 기초 및 실용영어와 수학, 물리, 물리실험, 화학, 화학실험 등의 기초교양 과목을 배운다. 이 과목들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최대 3학점이 인정된다.

교수도 마찬가지다. 수업을 맡은 교수들은 1학기와 다르지 않게 매일 9시 이전 출근해 수업을 준비하고, 오후 6시까지 과목별 수업에 참여하며 학생들과 함께 방학을 보내고 있다.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마인숙 교수(자연대 수학과)는 "매년 특별학기를 통해 방학 중에도 열정을 쏟는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동력을 얻는 것 같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학생들이 대견하고, 함께 땀흘리는 동료 교수님들에게도 함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이를 통한 교육 효과도 매우 좋다.

특별학기 평균 이수율이 1주기(2012~2014년) 87.7%에서 2주기(2015~2018)에는 93.1%로 상승했고, 수준별 분반수업을 통해 2016년부터 학사경고자 수도 46.5%로 매년 30% 이상 크게 감소하며 전공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했다.

신재필 학생(영어영문학과 2년)은 "방학을 활용해 그동안 부족하게 느껴졌던 기초과목을 배우면서 그 누구보다 의미 있는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해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는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과서 자유발행제 시범사업 편찬기관 공모

문체부 게임기획 · 해수부 수중드론 등 10종… 8일까지 방문 접수

전북도교육청이 교과서 자유발행제 시범사업 편찬기관을 공모한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강화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점진적 자유발행제'를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자유발행제'는 학교 수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의 관여 없이 교과서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부처가 개발을 희망하는 도서는 총 10종이다.

부처별로는 △문체부:게임기획, 자료구조와 알고리즘(2종) △과기정통부:정보보호 이론, 정보보호 실습(2종) △농식품부:첨단농업시설 운영 및 관리, 산업곤충(2종) △해수부:해상 및 수중드론, 스마트 양식(2종) △소방청:소방시설학(1종) △외교부:세계속의 한인(1종) 등이다.

응모자격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집필진 구성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최근 5년간 교과용도서 편찬 경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국·공·사립대학,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교과용도서 관련 유관기관, 정부부처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비영리법인 등이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기관은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를 오는 8일 오후 4시까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 및 제안서 설명회(14일)를 거쳐 8월 19일 최종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 1차 공모에서 1개 기관 이하 응모시 8월 9~16일까지 재공모에 들어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유용하고 의미있는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있는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영양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성장발달 '쑥쑥'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몸 튼튼 건강캠프' 진행

전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여름 건강 캠프'를 진행했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여름 건강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몸 튼튼! 마음 튼튼! 건강캠프!'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영양체험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캐릭터 도시락, 떡 케이크를 부모님과 함께 만들며 건강한 음식 재료와 영양소에 대해서 학습했다.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차경희 교수는 "어린이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봄으로써 오감을 자극해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어린이 건강캠프는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주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및 어린이 약 3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실태 현장점검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기숙사 운영실태 현장점검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입사기회의 평등과 인권우호적인 기숙환경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도내 도시형 고등학교 기숙사 12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7월30일 완산고, 전일고, 군산중앙여고, 군산영광여고를 시작으로 7월31일은 양현고, 전라고, 군산고, 군산제일고 8월1일은 전주신흥고, 기전여고, 이리여고, 성일고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 여부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 개최 현황 ▲학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포함여부 ▲입사생 선발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거리 학생 우선배정 원칙 등 기숙사 운영 규정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 인권 우호적인 기숙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통해 기숙사 입사생들의 학업 편의를 돕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운영규정의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숙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오민석 교수, 고내식성 합금 제조 '특허기술상'

전북대학교는 오민석 교수(공대 신소재공학부 금속시스템공학전공)가 내식성이 우수한 용융아연합금 코팅강판 및 제조 기술로 2019년 상반기 '특허기술상 지석영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술은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3원계 합금도금의 조성 및 제조 기술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 아연도금 제품 대비 5배 이상의 고내식성을 갖는 강판을 개발했다.

개발된 강판은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 가전제품, 고급 건축자재 등 부식방지가 필요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내식강판에 대한 세계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과 중앙일보사가 주관하는 특허기술상은 국내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우수 발명을 발굴·시상함으로써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범국민적인 발명 분위기를 확산시켜 국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수여하고 있다.

한편, 오 교수는 포스코기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거쳐 2018년 전북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물질의 계면 및 표면 제어를 통한 미래형 자동차, 가전 및 건설산업용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권대규 교수, 전북지역 창업보육협의회장 취임

권대규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이 최근 전북지역창업보육협의회 신임 회장에 취임해 1년 간 임기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센터장은 전북지역의 창업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전문화, 특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과 유관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권대규 센터장은 "전북지역창업보육협의회를 통해 전북지역 우수 기업의 창업역량 강화 및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논의함으로써 협의회 체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창업보육협의회는 현재 도내 16개 창업보육센터와 4개 기관이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